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시작하여 지켜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왕과 하만은 이번이 두 번째 참석이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여 공을 세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하만에게 왕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을 어떻게 상을 주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개를 달게 해달라고 고발하기 위하여 그곳에 갔다가 왕의 이 질문이 자기를 위한 질문으로 착각하여 다소 과정 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에6:7-9)."

하지만 왕이 염두 해둔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개였습니다. 왕은 하만의 이 제안을 받아들여 모드르개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하만에게 명을 내립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고발하기 위해 갔다가 자신이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던 모르드개를 오히려 높이는 역할을 하고 돌아옵니다.

하만은 분노가 가득하여 집으로 돌아와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자신의 아내와 친구에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하만에게 예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6:13)."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궁에서 사람이 와서 하만을 왕비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그 잔치에서 왕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대로 자신의 민족이 처한 죽음의 위기를 왕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게 이러한 위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다름아닌 하만이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왕은 분노하였고 왕비 앞에 엎드려있는 하만이 왕비를 범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하만이 만들어둔 나무에 하만을 달아 그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립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에스더는 자신들의 민족이 하만의 악한 꾀 때문에 처하게 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왕은 명령을 내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민족인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아달월 즉 12월에 14일과 15일에 있는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아달월 곧 열두째 달 십삼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림절은 12월에 지키는 절기로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될 위기에 처해있던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이 되어 도리어 자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장21-22절에는 부림절의 의미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림절 절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림절을 그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로써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무관한 절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림절은 예수님께서 심판 주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절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부림절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는 날로써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과 참소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살고 영적 싸움의 수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둘째 사망 곧 불 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계20:13-15).

두 번째는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그 날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계21:4).

세 번째는 오늘 본문 9장22절의 말씀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베풀며 즐기고 예물을 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마5:3). 야고보서 1장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로 대표할 수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와 고아는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도 포함하고 있지만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사람들 조차도 말세 중의 말세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을 알 수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지만 우리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인내로 견디며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러나 현재에 이미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